

배포일자 : 2025.8.14 보도일자 : 배포즉시	쪽수	사진	기관 도메인주소	자료문의
경기도박물관 <광복 80-합승> 특별전 3부작 Ⅱ 《여운형: 남북통일의 길》	10	10	musenet.ggcf.kr	부서 : 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팀 담당 : 이소희 전화 : 031-288-5335

경기도박물관 <광복 80-합승> 특별전 3부작 Ⅱ 《여운형: 남북통일의 길》

- ▶ 8월 15일,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 《여운형: 남북통일의 길》 개막
- ▶ 통일의 화신으로 되살아난 여운형의 삶과 사상을 통해 연대와 공존의 가치 재조명
- ▶ 다양한 유물·영상과 함께 체험·공연·특강 등 연계 프로그램도 풍성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박물관(관장 이동국)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특별전 《여운형: 남북통일의 길》을 오는 8월 15일부터 10월 26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기획한 ‘광복80-합승’ 특별전 3부작의 두 번째 전시로, 몽양기념관과 공동으로 주최한다.

전시는 일제강점기와 해방 전후에 걸쳐 독립과 통일을 위해 헌신한 몽양 여운형(1886~1947)의 삶을 조명하며, 그가 실천한 연대와 공존의 정신을 오늘에 되새겨본다.

몽양 여운형은 경기도 양평 출신의 대표적 독립운동가로,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 신한청년당을 조직하고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활동에 깊이 관여했다. 해방 이후에는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좌우합작, 남북협력을 위해 힘썼으나 1947년 열두 번째 테러 끝에 서울에서 암살됐다.

이번 전시를 통해 여운형의 삶의 행적을 되돌아보며 그의 꿈과 동력을 살펴보고, 그가 가진 통합의 정신을 기억하고자 한다. 특히 여운형주의가 ‘사람이 하늘(人乃天)’,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弘益人間)’는 동학과 단군의 민족주의를 토대로 기독교의 자유와 공산사회주의의 평등 사상을 융화시킨 결정체임을 이번 전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된다.

제1부 ‘독립운동의 길’에서는 교육자·언론인·외교가·체육인으로서의 다양한 면모를 조명하고, 제2부 ‘좌우합작의 길’에서는 좌우합작·남북연합을 위해 펼친 정치적 노력과 관계망을 소개한다. 제3부 ‘죽음에서 삶으로’에서는 암살 이후 대중의 추모와 오늘날의 의미를 되새긴다. SNS 형식으로 재구성한 ‘여운형 인스타’ 코너도 마련되어 청소년과 일반 관람객의 접근성을 높였다.

전시에는 여운형이 피격당할 당시 입었던 혈의(血衣), 데드마스크, 만장, 분측도 합필입(分則倒 命必立) 유묵, 신한청년 창간호, 조선건국동맹 성명서 등 유물과 자료 100여 점이 공개된다.

이와 함께 뮤지컬, 특강, 어린이 체험 등 다채로운 연계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8월 15일에는 박물관 뮤지엄아트홀에서 창작뮤지컬 ‘2025 몽양을 말하다’가 11시, 3시 30분에 2회 상영되며, 같은 날부터 17일까지는 어린이 체험 교육프로그램 ‘박물관 비밀결사대 - 미션해결!’이 열린다. 9월과 10월에는 여운형의 정치·예술·체육 활동을 다룬 특강과 토크 콘서트, 도올 김용옥의 특강 ‘시대의 정치모델, 몽양 여운형’도 예정되어 있다.

이번 전시는 역사 인물 중심의 3부작 ‘광복80-합승’ 시리즈의 일환으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반기까지 한국 근현대사의 변곡점을 함께한 김가진, 여운형, 오세창 3인의 사상과 활동을 순차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경기도박물관 이동국 관장은 “암살로 중단된 여운형의 좌우합작을 통한 남북통일의 길이, 이번 전시를 계기로 ‘여운형주의’로 이어져 오늘날 우리가 실천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박물관 누리집(musenet.ggcf.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전시 개요

전 시 명	《여운형: 남북통일의 길》
전시기간	2025년 8월 15일(금) ~ 2025년 10월 26일(일)
장 소	경기도박물관 기획전시실
주 관	경기도박물관, 몽양기념관
문 의	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팀 031-288-5335 / musenet.ggcf.kr
전시 소개	경기도박물관(관장 이동국)은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 ‘광복80-합승 《여운형: 남북통일의 길》’을 개최한다. 역사인물 중심의 3부작 시리즈로 계획된 ‘광복80-합승’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반기까지 한국 근현대사의 변곡점을 함께했던 동농 김가진, 몽양(夢陽) 여운형, 위창 오세창 3인의 사상과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몽양 여운형의 일생과 활동에 영상을 많이 추가하여 소개한다. 또한 여운형에 대해 잘 모르거나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위해 읽기 편한 짧은 글과 사진으로 소개하는 코너도 마련했다. 전시 기간 중에는 여운형 관련 교육체험프로그램, 연극, 도올 김용옥 특강 등도 마련되어 전시와 함께 다채로운 행사를 즐길 수 있다. 《여운형: 남북통일의 길》 특별전은 ‘광복80-합승’ 시리즈의 두 번째 전시이다. 여운형은 1886년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나 일제강점기 국내외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대표적인 독립 운동가이다. 1914년 중국으로 건너가 임시정부의 물적, 인적 토대가 되는 상해교민단, 신한청년당 등을 만들었다. 신한청년당에서는 독립청원서를 작성하여 1919년 파리강화회의 참석 대표자로 김규식을 파견했으며 일본, 러시아, 국내로 흩어져 2.8 독립선언과 3.1운동에도 불을 지폈다. 또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외무부 차장을 지냈다. 일제의 심장부인 도쿄제국호텔에서 조선독립을 주장했고 쑨원, 레닌과 같은 세계적 지도자와도 교류하며 조선 독립의 길을 찾고자 했다. 중국에서 항일 독립 운동에 매진하던 중 1929년 중국 상하이에서 일본 경찰에 잡혀 3년간 국내에서 옥고를 치렀다. 출감 후에는 국내에서 언론·체육·교육 활동 등에 종사하면서 ‘건국동맹’이라는 전국 규모의 비밀 결사를 만들었다. 해방 후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우리 민족에게 ‘해방’의 공간을 열어주었다. 국내에 진주한 미·소와 협력하고, 좌우와 남북이 연합하여 완전한 독립, 통일 정부를 이루려다 1947년 열두 번째 테러에 희생되었다.
전시 구성	전시는 여운형의 삶과 행적을 살펴볼 수 있도록 3부로 구성하였다. 길고 혹독했던 일제강점기와 혼란의 해방정국에 여운형은 교육, 선교, 언론, 외교, 체육과 좌우합작 등 다채로운 불빛으로 독립과 통일의 길을 밝혔다. ○ 1부 독립운동의 길 20대 초반,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동학사상을 집안 노비 해방으로 실천한 휴머니스트

여운형은 정치인, 언론인, 체육인, 모험가로서 다채로운 삶을 살아왔다.

특히 상하이 신한청년당 당수로 활동하며 만주·도쿄·서울·블라디보스토크 등지에서 무오·2·8·3·1·국민의회 독립선언에 이르는 현장에서 행동대장 역할을 수행한 그의 행적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조선중앙일보 사장과 조선체육회 회장으로서는 이상, 최승희, 손기정 등 한국 현대 예술과 체육 분야의 천재·전설·거장을 발굴하고 후원한 것도 여운형의 업적이다.

○ 2부 | 좌우합작의 길

해방을 준비하며 만든 조선건국동맹, 해방 정국의 혼란 속에서 조직한 조선건국준비위원회, 분단의 위기에서 추한 좌우합작과 남북연합 등의 활동과 그것을 가능케 했던 그의 관계망을 소개한다.

○ 3부 | 죽음에서 삶으로

암살과 장례, 그를 기리는 대중의 반응을 통해 여운형의 ‘죽음’이 오늘날까지 어떤 울림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 에필로그 | 여운형 인스타

몽양 여운형이 낳은 이들에게 좀 더 몽양을 친근하고 쉽게 소개하기 위해 SNS 콘텐츠로 구성하였다.

■ 몽양 여운형 소개

몽양 여운형(夢陽 呂運亨, 1886~1947)은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나 한평생을 민족의 독립과 통일에 바친 인물이다. ‘사람이 하늘’이라는 동학사상을 어릴 적부터 몸으로 익혔고, 청년기에는 신학문을 공부하였다. 조선에서 계몽운동을 하다, 한일강제합병(1910년)이후에 중국으로 건너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활동에 깊이 참여했다. 해방 전후에는 독립운동뿐 아니라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며 새로운 나라를 준비하고, 좌우합작을 통한 남북통일을 위해 헌신하였다.

한결같고 빛나는 삶이었지만, 그는 살아생전 억울한 비난과 오해에 시달리기도 했다. 친일파, 밀정, 공산주의자, 친미주의자라는 상반된 누명이 그에게 씌워졌다. 해방 후에는 10여 차례의 테러를 겪었고, 결국 서울 한복판에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 그의 일생과 업적에 비해 그는 우리 기억에서 너무 쉽게 사라졌고 여전히 덜 알려져 있다.

■ 특별전 연계프로그램

1. 창작뮤지컬 : 2025 몽양을 말하다.

- 일시: 8.15.(금), 11:00~11:50, 15:30~16:20
- 장소: 경기도박물관 뮤지엄아트홀

2. 특별전 연계 교육프로그램 : 경기도박물관 비밀결사대 - 미션 해결!

- 일시: 8.15.(금)~8.17.(일), 11:00, 14:00
- 장소: 경기도박물관 배움터

3. 토토즐 시네마 in 경기뮤지엄파크

상영일	시간	상영작	상영시간	장소
8월 15일(금)	13:00	뮤지컬 실황 <굿모닝 독도> (광복절 기념)	100분	경기도박물관 뮤지엄아트홀
	17:00	오페라 실황 <마술피리> (광복절 기념)	140분	야외상영
8월 16일(토)	10:30	예술다큐 <이중섭의 아내>	82분	경기도박물관 뮤지엄아트홀
8월 23일(토)	10:30	광복 80주년 기념 <허스토리>	121분	경기도박물관 뮤지엄아트홀
	13:00	광복 80주년 기념 <봉오동 전투>	135분	경기도박물관 뮤지엄아트홀

4. 광복80주년 기념 문화예술행사 ‘2025 Reboot 815’ 여운형 전시 연계 : 스포-쓰는 독립의 힘

- 일시: 8.15.(금)~8.16.(토), 13:00~18:00
- 장소: 시흥 거북섬

5. 경기도박물관×아트인컬처 <박물관대학>: 광복80 한국미술80 - 한국화의 어제와 오늘

- 일시: 8.16.(토), 14:00
- 장소: 경기도박물관 뮤지엄아트홀
- 강연자: 김백균(중앙대교수), 이동국(경기도박물관장), 백필균(소현문 운영자)

6. 여운형통일統 — 특강&토크Ⅰ : 몽양과 대한민국 정치

- 일시: 9.3.(수), 16:00
- 장소: 경기도박물관 뮤지엄아트홀
- 강연: 김준혁(국회의원), 김태일(몽양여운형기념사업회 이사장)

7. 여운형통일統 — 특강&토크Ⅱ : 몽양과 대한민국 예술과 체육

- 일시: 9.20.(토), 14:00
- 장소: 경기도박물관 뮤지엄아트홀
- 강연 및 토론: 이준승(손기정기념관 사무총장), 최열(미술사학자), 박상순(시인, 화가)

8. 여운형통일統 — 석학특강 : 새 시대의 정치모델, 몽양 여운형

- 일시: 10.3.(금), 14:00
- 장소: 경기도박물관 뮤지엄아트홀
- 강연: 도올 김용옥



별첨 2

주요 작품



1. 여운형의 얼굴을 본 뜬 데드마스크
1947 | 석고 17.0 × 29.5 × 22.0 |
몽양기념관(몽100074)

데드마스크란 죽은 사람의 얼굴을 본떠 만든 모형으로 죽은 이의 모습을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해 만들었다. 이 작품은 조선의 독립과 통일에 앞장서다 희생당한 여운형의 마지막 얼굴을 표현한 석고 데드마스크이다. 《조선중앙일보》 학예부장이자 조각가였던 김복진(金復鎭, 1901~1940)의 제자가 조각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2. 환갑 축하 병풍
김진우(金振宇)|1946 | 415.0×192.5 |
몽양기념관(몽100022)

여운형이 60세 생일(환갑)을 맞이한 1946년 음력 4월, 김진우(1883~1950)가 그려 선물한 대나무 그림 병풍이다. 모두 10폭으로 되어 있다. 김진우는 일제강점기 서화가이자 독립운동가로 호는 일주(一洲)이다. 그는 사군자(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그림 중에서도 대나무를 가장 잘 그렸다. 친구이자 동지인 여운형의 조선 독립에 대한 끝없는 믿음과 자세를 늘 푸른 대나무로 잘 표현했다.



3. 여운형 글씨 <분족도 합필립>
1944 | 84.0×48.9(99.3×63.5) |
독립기념관(1-012548-000)

1944년(갑신년)을 맞이하여 정치인이자 통일 운동가 김문갑(金文甲, 1909~2004)에게 써 준 여운형의 글씨이다. “흠어지면 넘어지고 뭉치면 반드시 일어선다(分則 倒 合必立)”는 뜻으로 민족의 단결을 강조한 글귀이다. 김문갑은 여운형의 열렬한 지지자로 1945년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조선인민당, 1947년 근로인민당 조직 등 여러 역할로 참여하였다.

	《신한청년》은 여운형이 만든 신한청년당에서 펴낸 잡지이다. 이 책은 《신한청년》의 첫 책(창간호)으로 한글과 한문이 같이 쓰여 있다. 《신한청년》 창간호는 한문판, 국한문판 등이 남아 있다. 여운형은 1918년 우리나라 최초의 정당인 ‘신한청년당’을 만들어 파리강화회의에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했다. 이후 여운형과 신한청년당 사람들은 조선, 일본, 만주, 러시아 등지로 흩어져 만주·일본에서의 독립선언과 3·1운동에 결정적인 불을 지폈다.
4. 신한청년 창간호 1919.12.1. 12.2×18.0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복제	
	조선건국동맹(朝鮮建國同盟)은 일제의 패망을 앞당기고 해방 이후 새로운 나라 건설을 준비하고자 여운형이 만든 독립운동 단체이다. 1944년 만들어진 이 단체는 해방 직후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신속히 바뀌어 실제로 조선의 사회 질서 유지와 새로운 나라 건설에 크게 기여했다. 이 성명서는 해방을 맞은 1945년 조선건국동맹에서 발표한 것이다. 맨 오른쪽 ‘성명(聲明)’이라는 글귀를 시작으로 해방을 맞아 새 나라 건설을 준비하기 위한 5개의 제안이 있다. 내용을 간단히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선인을 해치는 일본의 나쁜 행위를 끝까지 막아내자. 2. 남은 일제 세력을 없애 버리고, 조선 인민의 재산을 반환시키자. 3. 갈라진 정당 싸움을 정리하고, 조선 건설에 힘을 다하자. 4. 조선인민공화국 정부에 모든 힘을 집중하자. 5. 미·소·영·중 연합군을 반갑게 맞이하고, 망명한 조선 민족해방 선배를 받들어 모시자. 그 뒤에는 조선완전독립만세!!(朝鮮完全獨立萬歲!!), 조선민족해방만세!!(朝鮮民族解放萬歲!!), 조선인민공화국만세!!(朝鮮人民共和國萬歲!!) 등과 이 성명서를 발표한 조선건국동맹(朝鮮建國同盟)이라는 글귀가 있다.
5. 조선건국동맹 성명서 1944 22.0×29.7 대한민국역사박물관	



6. 암살 당시 입었던 옷
1947 | 뒤편 66.0 뒷길이 67.0 |
국가등록문화재 | 몽양기념관

1947년 7월 19일 피격당할 당시 입고 있던 상의 유품이다. 여운형이 1947년 7월 19일 테러로 암살당할 당시 입고 있던 양복 상의와 셔츠이다. 양복 상의에는 오른쪽 어깨 뒤쪽과 등 쪽에 총탄 구멍이 있고 핏자국이 남아 있다. 양복 주머니에는 은단과 수첩이 들어 있었다. 손바느질로 소매 윗부분을 줄인 푸른색 줄무늬 셔츠에도 총탄 구멍과 핏자국이 남아 있다.

이 옷은 여건구(여운형의 조카)가 서울 계동 집에서 보관해 오다가 이해원(여건구의 딸)에게 전해진 것이다. 계동 집이 철거되면서 양평 묘골로 옮겨진 것을 이해원이 2007년 몽양기념관에 기탁하였다. 2016년과 2022년 모두 두 차례의 보존처리를 거쳤다. 2014년 국가등록문화재 제608호로 지정되었다.



7. 여운형 만장
경북 안동 하회 류시제 / 신문배달인 동맹 |
1947

만장은 죽은 이를 기리고 슬퍼하는 마음을 담아 깃발처럼 만든 것을 말한다. 주로 비단, 종이 등으로 만들며 상여(관을 옮기는 기구) 앞쪽에서 장례 행렬을 이끈다. 슬픔을 표현하는 ‘근조(謹弔)’라는 글귀로 글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만장은 장례식 후 모두 태우는데, 여운형 만장은 가족들이 보관하여 지금까지 전해진다. 1947년 8월 3일 그의 죽음을 슬퍼했던 사람들이 들었던 수천 개의 만장 중 117점이 남아 있다.



8. 손기정 청동 투구
1936 | 금속-동합금 | 18.7×22.0. (높이)
손기정기념관 | 복제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 참가한 손기정(孫基禎, 1912~ 2002) 선수의 청동 투구이다. 손기정은 마라톤에서 2시간 29분 19.2초이라는 세계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 투구는 금메달과 함께 상품으로 받을 예정이었으나, 당시 올림픽 규정에 의해 50년이나 지난 뒤 손기정에게 전달되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되어 있다.

여운형은 베를린 올림픽에 나가는 손기정을 비롯한 조선인 선수들에게 일본 국기(일장기)를 달고 참가하지만, 한반도를 짊어지고 간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부탁했다. 마라톤에서 우승한 손기정은 상을 받는 자리에서 화분으로 일장기를 가리고 고개를 숙이게 된다. 이 사진을 본 여운형은 손기정의 사진에서 일장기를 지우고 기사를 내기로 결심한다. 결국 일장기를 지운 사진을 신문에 실었다는 이유로 《조선중앙일보》는 문을 닫게 되고, 여운형도 《조선중앙일보》 사장에서 물러나게 되었다.